

# 간호사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김영숙<sup>1</sup> · 권미경<sup>2</sup>

강릉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수간호사<sup>1</sup>,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2</sup>

## Nurse's Parenting Stress

Kim, Young Sook<sup>1</sup> · Kwon, MiKyung<sup>2</sup>

<sup>1</sup>NICU Head Nurse, Gangneung Asan Medical Center,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parenting stress of nurses with infants, toddlers, or pre-schoolers. **Methods:** The subjects are the 117 nurses working in hospitals in Gangneung City. The instruments are the questionnaires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14 items), parenting stress (32 items). **Results:** The parenting stress of nurses scored 2.46. The total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ut according to the position, baby-sitter, parenting support did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Conclusion:** Nurse's parenting stress is slightly high. But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the nursing intervention to relieve the parenting stres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enting stress.

**Key Words:** Parenting stres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참여는 점점 늘어나 2008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50.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Statistics Korea, 2009). 이런 실태는 육아 및 가사 활동에만 전념하던 여성들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고, 자녀양육에 따른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스트레스원 (Kim, 2000)으로 비 취업모에 비해 높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aek, 2007).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쳐 (Abidin, 1990; Belsky, 1984)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 시키고, 나아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Kim, 2006).

특히 영유아를 비롯한 취학 전 아동기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한다 (Abidin, 1990).

따라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취업 관련 특성들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관련 특성으로는 소득이나 직종, 근무 및 출퇴근 시간, 취업의 동기와 같은 일반적 특

**주요어:** 양육 스트레스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on, MiKyung,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522 Naegok-dong, Gangneung 210-701, Korea.  
 Tel: 82-33-649-7614, Fax: 82-33-649-7620, E-mail: mkkwon@kd.ac.kr

투고일: 2010년 11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9일

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 직업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Kim, 2000; Kim, 2006; Baek, 2007; Yun; 2006; Huh, 2006). 특히 직종이 전문직일수록 (Yun, 2006), 근무시간이 길수록 (Huh, 2006),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적을수록 (Kim, 2006)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취업 여성들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전문여성 인력 중의 하나인 간호직은 전문직으로 직업의식이 강하고 엄격한 조직체계하에 개개인의 각자의 책임이 주어지며, 직장에서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융통성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에 따른 야근이 필수적이어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Kwon, 2006).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 (Kim & Pack, 1991; Jo, 2001)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간호사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을 동시에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으로 (Kim, 2000),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면허간호사로 결혼하여 영유아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간호사를 말한다.

### 2) 자녀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Solis & Abidin, 1991) 본 연구에서 취업도 간호사의 양육 스트레스는 영유아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간호사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

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Kim과 Kang (1997)이 개발한 도구로 Kim (2000)이 수정 보완한 양육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동의한 취업모간호사 117명이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14문항,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32문항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Abidin (1990)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지수 (Parenting Stress Index, PSI)의 부모 영역 요인, Crnic와 Greenberg (1990)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Parenting Daily Hassles: PDH), Mann과 Thornberg (1987)의 어머니 죄책감 정도 (Maternal Guilt Scale: MGS)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Kim과 Kang (1997)이 개발한 도구로 Kim (2000)이 수정 보완한 양육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문항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12문항,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 8문항으로 총 32문항,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Kim (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1$ 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G시 종합병원 2곳에서 영유아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고 동의서에 답한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총 117명을 분석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확인하였다.
-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는 ANOVA로 확인하였으며 차이를 보인 변수에 대해 그룹 간 차이는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특성, 양육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1세에서 35세가 46명 (40.0%)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33세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71명 (61.7%)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수입은 400~499만원이 47명 (40.2%)으로 가장 많았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72명 (61.5%)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생활 만족도 역시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74명 (63.2%)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성원을 보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85명 (72.6%)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 2) 직업 특성

근무 장소는 특수부서가 64명 (54.7%)으로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 93명 (79.5%)이 가장 많았다. 토요일 근무 횟수는 월 3회 이상이 65명 (5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 1~2회가 44명 (37.6%)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urse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 30	42 (36.5)
	31~35	46 (40.0)
	≥ 36	27 (23.5)
Education	College	26 (22.6)
	University	71 (61.7)
	Graduate school	18 (15.7)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14 (12.0)
	300~399	26 (22.2)
	400~499	47 (40.2)
	≥ 500	30 (25.6)
Satisfaction with husband	Very satisfaction	21 (17.9)
	Satisfaction	72 (61.5)
	Moderate	20 (17.1)
	Unsatisfaction	4 (3.4)
Marriag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6 (13.7)
	Satisfaction	74 (63.2)
	Moderate	21 (17.9)
	Unsatisfaction	6 (5.1)
Family member	Parent+child	85 (72.6)
	Parent+child+mother in law	23 (19.7)
	Parent+child+mother	5 (4.3)
	Parent+child+relatives	4 (4.3)

근무 횟수는 월 3회 이상이 48명 (4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 1~2회가 41명 (35.0%)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72명 (61.5%)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94명 (81.7%)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조건은 3부교대가 78명 (66.7%)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6년에서 10년 이하가 45명 (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11년에서 15년 이하가 38명 (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 3) 양육 특성

자녀수는 1명이 65명 (55.6%)으로 가장 많았고, 2명 (3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보육인으로는 양가부모님이 68명 (58.1%), 놀이방 (어린이집)이 33명 (28.2%)으로 나타났다.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양육지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67명 (57.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이 5명 (4.3%)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는 4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36명 (34.6%),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32명 (30.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2.** Working Characteristics of Nurse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
Location	Ward	36 (30.8)
	Ambulatory · office	17 (14.5)
	Special part	64 (54.7)
Position	Staff nurse	93 (79.5)
	Charge nurse	15 (12.8)
	Head nurse	9 (7.7)
No. of the Saturday shifts (month)	No working	8 (6.8)
	1~2	44 (37.6)
	≥3	65 (55.6)
No. of the Sunday shifts (month)	No working	28 (23.9)
	1~2	41 (35.0)
	≥3	48 (41.0)
Work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29 (24.8)
	Moderate	72 (61.5)
	Unsatisfaction	16 (13.7)
Reason of working	Making money	94 (81.7)
	Capability	16 (13.9)
	For another carrier	3 (2.6)
	Etc.	2 (1.7)
Condition of working	Day time	35 (29.9)
	2 Shift	4 (3.4)
	3 Shift	78 (66.7)
Carrier (year)	≤5	25 (21.4)
	6~10	45 (38.5)
	11~15	38 (32.5)
	16~20	9 (7.7)

**Table 3.** Parenting Characteristics of Nurse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
No. of child	1	65 (55.6)
	2	44 (37.6)
	≥3	8 (6.8)
Baby-sitter	Grand parents	68 (58.1)
	Sibling and/or relatives	5 (4.3)
	Private day care center	33 (28.2)
	Day care center in working	4 (3.4)
	Etc	7 (6.0)
Parenting support	Satisfaction	24 (20.5)
	Moderate	67 (57.3)
	Unsatisfaction	21 (17.9)
	Very unsatisfaction	5 (4.3)
Rearing fee (10,000 won)	< 20	6 (5.8)
	20~40	32 (30.8)
	40~60	36 (34.6)
	60~80	15 (14.4)
	> 80	15 (14.4)

## 2. 간호사의 양육 스트레스

간호사가 지각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문항 평균점수는  $2.46 \pm 0.49$ 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 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평균  $2.58 \pm 0.51$ 점으로 가장 높고,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이 평균  $2.42 \pm 0.52$ 점,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 요인이 평균  $2.39 \pm 0.45$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Parenting Stress of Nurses (N=117)

Variables	Min	Max	M±SD
General stress from the parenting	1.00	4.00	$2.58 \pm 0.51$
Burden from parenting role	1.17	3.83	$2.39 \pm 0.45$
Guilty feeling caused by parenting from others	1.00	4.00	$2.42 \pm 0.52$
Total parenting stress	1.10	3.92	$2.46 \pm 0.49$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월평균 수입,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 결혼 만족도와 가족구성원은 전체 양육 스트레스와 하위 요인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부담감,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 2) 직업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직업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특성 변인으로는 직위 ( $F=3.35, p=.04$ )로 수간호사보다 주임간호사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부모역할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특성 변인으로는 토요일 근무 횟수 ( $F=3.33, p=.04$ )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보다 월 3회 이상 근무할 때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 특성 변인으로는 대상자의 직위 ( $F=4.60, p=.01$ )와 토요일 근무 횟수 ( $F=3.87, p=.02$ )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간호사보다 주임간호사가 타인

**Table 5.**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General stress from the parenting			Burden from parenting role			Guilty feeling caused by parenting from others			Total parenting stress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Age (year)	≤30	42	2.67±0.42	1.34	.27	2.41±0.39	0.11	.90	2.55±0.54	2.08	.13	2.54±0.37	1.28	.28
	31~35	46	2.50±0.59			2.38±0.49			2.35±0.52			2.41±0.46		
	≥36	27	2.55±0.48			2.35±0.5			2.32±0.5			2.41±0.4		
Education	College	26	2.73±0.59	1.99	.14	2.54±0.46	2.26	.11	2.52±0.53	2.87	.06	2.60±0.45	2.03	.14
	University	71	2.51±0.48			2.35±0.44			2.45±0.53			2.43±0.42		
	Graduate school	18	2.64±0.48			2.30±0.46			2.16±0.46			2.37±0.38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14	2.75±0.46	0.81	.49	2.49±0.41	0.57	.64	2.63±0.34	2.22	.09	2.62±0.35	0.94	.42
	300~399	26	2.49±0.58			2.38±0.49			2.56±0.62			2.48±0.52		
	400~499	47	2.59±0.45			2.33±0.44			2.30±0.51			2.41±0.39		
	≥500	30	2.57±0.55			2.43±0.46			2.41±0.50			2.47±0.42		
Satisfaction with husband	Very satisfaction	21	2.50±0.44	1.38	.25	2.24±0.46	1.48	.23	2.23±0.49	1.60	.19	2.32±0.37	1.85	.14
	Satisfaction	72	2.55±0.46			2.39±0.43			2.43±0.51			2.46±0.41		
	Moderate	20	2.78±0.70			2.53±0.50			2.55±0.58			2.62±0.50		
	Unsatisfaction	4	2.67±0.48			2.50±0.56			2.63±0.67			2.60±0.51		
Marriag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6	2.42±0.39	1.54	.21	2.21±0.48	1.76	.16	2.17±0.50	2.07	.11	2.27±0.37	2.42	.07
	Satisfaction	74	2.56±0.47			2.38±0.43			2.42±0.51			2.45±0.41		
	Moderate	21	2.75±0.69			2.54±0.51			2.58±0.55			2.62±0.50		
	Unsatisfaction	6	2.75±0.39			2.50±0.42			2.56±0.60			2.60±0.39		
Family member	Parent+child	85	2.57±0.52	1.66	.18	2.40±0.48	0.75	.53	2.45±0.54	0.62	.60	2.40±0.44	0.71	.55
	Parent+child+mother in law	23	2.51±0.52			2.31±0.40			2.36±0.49			2.39±0.41		
	Parent+child+mother	5	2.95±0.20			2.63±0.30			2.50±0.57			2.69±0.35		
	Parent+child+relatives	4	2.9±0.25			2.44±0.28			2.13±0.37			2.49±0.19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보다 월 3회 이상 근무할 때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3) 양육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양육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자녀보육인 (F=3.67, p=.01)과 양육지지도 (F=4.57, p=.01)로 현재 직장탁아시설보다 놀이방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양육지지도에 만족할 때 보다 매우 불만족할 때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양육특성 변인으로는 양육지지도 (F=4.80, p=.00)로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양육지지도에 만족할 때 보다 매우불만족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양육특성

변인으로는 자녀보육인 (F=3.62, p=.01), 양육지지도 (F=3.84, p=.01)로 현재 직장탁아시설보다 형제 및 친척, 놀이방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양육지지도에 만족할 때 보다 매우 불만족할 때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양육특성 변인으로는 자녀보육인 (F=5.32, p=.00)로 현재 직장탁아시설보다 놀이방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문항 평균점수는 2.4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won (2006)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문항 평균점수 2.47점과 5~7세 아동을 자

Table 6.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Working Characteristic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General stress from the parenting			Burden from parenting role			Guilty feeling caused by parenting from others			Total parenting stress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Location	Ward	36	2.50±0.43	0.84	.44	2.37±0.43	0.49	.62	2.48±0.52	0.42	.66	2.45±0.43	0.30	.74
	Ambulatory · office	17	2.67±0.63			2.49±0.57			2.46±0.62			2.54±0.56		
	Special part	64	2.61±0.52			2.38±0.43			2.38±0.51			2.46±0.41		
Position	Staff nurse	93	2.58±0.51	0.77	.47	2.37±0.43	2.96	.06	2.39±0.50	4.60	.01	2.44±0.40	3.35	.04
	Charge nurse	15	2.71±0.58			2.63±0.55			2.78±0.63 <sup>b</sup>	a<b		2.70±0.53 <sup>b</sup>	a<b	
	Head nurse	9	2.44±0.43			2.23±0.45			2.21±0.41 <sup>a</sup>			2.29±0.34 <sup>a</sup>		
Shift type	Day	35	2.57±0.51	0.50	.61	2.45±0.54	0.96	.39	2.38±0.54	1.48	.23	2.47±0.47	0.01	.99
	2 shift	4	2.83±0.94			2.60±0.63			2.03±0.48			2.49±0.60		
	3 shift	78	2.58±0.49			2.35±0.40			2.46±0.52			2.46±0.40		
No. of the Saturday shifts (month)	No working	8	2.47±0.34	0.27	.76	2.00±0.39 <sup>a</sup>	3.33	.04	1.94±0.38 <sup>a</sup>	3.87	.02	2.14±0.30	2.69	.07
	1~2	44	2.57±0.48			2.41±0.48		a<b	2.45±0.53		a<b	2.4±0.44		
	≥3	65	2.61±0.55			2.42±0.42 <sup>b</sup>			2.47±0.51 <sup>b</sup>			2.50±0.42		
No. of the Sunday shifts (month)	No working	28	2.61±0.54	0.25	.78	2.49±0.51	1.00	.37	2.34±0.47	0.52	.60	2.48±0.43	0.09	.95
	1~2	41	2.54±0.49			2.35±0.46			2.47±0.52			2.45±0.42		
	≥3	48	2.60±0.52			2.36±0.41			2.43±0.56			2.47±0.43		
Work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29	2.53±0.49	1.23	.30	2.35±0.46	0.77	.47	2.40±0.56	0.06	.94	2.43±0.43	0.70	.50
	Moderate	72	2.56±0.52			2.38±0.44			2.43±0.50			2.46±0.42		
	Unsatisfaction	16	2.77±0.48			2.52±0.52			2.45±0.59			2.58±0.45		
Reason of working	Making money	94	2.62±0.54	0.64	.59	2.42±0.47	0.71	.55	2.40±0.54	0.42	.74	2.49±0.45	0.71	.55
	Capability	16	2.48±0.36			2.28±0.41			2.28±0.47			2.35±0.35		
	For another carrier	3	2.33±0.30			2.17±0.00			2.38±0.33			2.29±0.21		
	Etc.	2	2.42±0.47			2.29±0.18			2.44±0.62			2.38±0.42		
Carrier (year)	≤5	25	2.67±0.45	0.93	.43	2.44±0.36	1.91	.13	2.55±0.44	1.63	.19	2.55±0.36	1.85	.14
	6~10	45	2.60±0.54			2.39±0.44			2.42±0.55			2.47±0.42		
	11~15	38	2.56±0.53			2.44±0.51			2.42±0.56			2.47±0.47		
	16~20	9	2.35±0.39			2.06±0.39			2.10±0.36			2.17±0.31		

Table 7.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Parenting Characteristic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General stress from the parenting			Burden from parenting role			Guilty feeling caused by parenting from others			Total parenting stress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No. of child	1	65	2.56±0.52	0.22	.80	2.35±0.45	0.97	.38	2.36±0.53	2.67	.07	2.42±0.43	1.40	.25
	2	44	2.62±0.53			2.46±0.48			2.56±0.51			2.55±0.45		
	≥3	8	2.58±0.26			2.29±0.25			2.20±0.44			2.35±0.21		
Baby-sitter	Grand parents	68	2.53±0.52	1.26	.29	2.34±0.39	3.62	.01	2.35±0.48	5.32	.00	2.41±0.39	3.67	.01
	Sibling and/or relatives	5	2.73±0.24			2.63±0.30 <sup>b</sup>		a<b	2.43±0.49		a<b	2.60±0.28		a<b
	Private day care center	33	2.72±0.49			2.54±0.50 <sup>b</sup>			2.70±0.52 <sup>b</sup>			2.66±0.43 <sup>b</sup>		
	Private day care center	4	2.60±0.32			1.79±0.39 <sup>a</sup>			1.75±0.37 <sup>a</sup>			2.05±0.32 <sup>a</sup>		
	Day care center in working Etc	7	2.36±0.68			2.30±0.59			2.21±0.53			2.29±0.57		
Parenting support	Satisfaction	24	2.44±0.36 <sup>a</sup>	4.80	.00	2.29±0.46 <sup>a</sup>	3.84	.01	2.33±0.58	2.30	.08	2.35±0.40 <sup>a</sup>	4.57	.01
	Moderate	67	2.51±0.51		a<b	2.33±0.41		a<b	2.37±0.48			2.41±0.40		a<b
	Unsatisfaction	21	2.85±0.50			2.59±0.49			2.68±0.57			2.71±0.46		
	Very unsatisfaction	5	3.05±0.58 <sup>b</sup>			2.82±0.42 <sup>b</sup>			2.48±0.35			2.78±0.26 <sup>b</sup>		
Rearing fee (10,000 won)	<20	6	2.65±0.41	0.09	.98	2.40±0.48	0.74	.57	2.50±0.48	0.60	.67	2.52±0.43	0.49	.74
	20~40	32	2.55±0.59			2.31±0.44			2.36±0.53			2.41±0.45		
	40~60	36	2.61±0.55			2.48±0.51			2.50±0.66			2.53±0.50		
	60~80	15	2.58±0.41			2.31±0.30			2.27±0.37			2.38±0.29		
	>80	15	2.62±0.56			2.38±0.53			2.43±0.47			2.48±0.43		

녀로 둔 어머니 (취업모: 66.7%, 비취업모: 30.9%)를 대상으로 한 Kim (2004)의 연구결과에서의 2.47점과 일치하였으나 많은 취업모들이 일과 가정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 Hwang (1998)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Baek (2007)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 취업모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Go (1994)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 취업모간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 등 비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요인 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이 평균 2.58점으로 가장 높고,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이 평균 2.42점,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 요인이 평균 2.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직장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대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월평균 수입, 남편과의 관계만족도, 결혼만족도, 가족구성은 전체 양육 스트레스와 하위요인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부담감,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Kwon (2006)의 간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연구결과와 Howe (1994)의 경제적 궁핍은 재정적인 긴장과 우려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으므로 높은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직업특성에 따른 전체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특성 변인으로는 직위 ( $F=3.35, p=.04$ )로 수간호사보다 주임간호사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과 양육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간호사보다 일반간호사가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Bong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주임간호사 및 일반간호사의 교대근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규칙성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으로 부모역할 부담감에서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보다 월 3회 이상 근무할 때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이 증가하였으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서는 수간호사보다 주임간호사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보다 월 3회 이상 근무할 때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때 보다 월 3회 이상 근무할 때 부모역할 부담감 및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증가하는 것은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의 근무조건 융통성이 낮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3교대 근무, 토요일이나 주말 근무 등이 많은 간호사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나 부모역할 부담감, 죄책감이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간호사의 경우에 육아휴직 보다는 일정한 기간 선호하는 근무시간과 요일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과 특히 3교대로 육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전일제 병원 내 탁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양육특성에 따른 전체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양육특성 변인으로는 자녀보육인 ( $F=3.67, p=.01$ )과 양육지지도 ( $F=4.57, p=.01$ )로 현재 직장 탁아시설보다 놀이방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양육지지도에 만족할 때 보다 매우 불만족할 때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에서는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양육지지도에 만족할 때 보다 매우 불만족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수행부담감에서는 현재 직장 탁아시설보다 형제 및 친척, 놀이방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양육지지도에 만족할 때 보다 매우 불만족할 때 부모역할 수행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동료의 지원이 일-가족 갈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Jo, 1998)이며 직장동료의 우정과 같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직장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한다 (Crouter & McHale, 1993)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서는 현재 직장 탁아시설보다 놀이방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이며 이로 인한 역할갈등이

크므로 탁아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Kim, 1995)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며, Yoo (1998)의 탁아방법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직장 탁아 방법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가정 탁아 방법을 이용하는 취업모보다 낮은 양육 스트레스와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최근 여성의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표적 여성전문직으로 간호사의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조건의 변화, 자녀를 둔 간호사를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 24시간 직장 탁아시설 및 교육시설 구비 및 유급 육아휴직 권장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병원과 사회, 국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법과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영유아 및 취학 전 자녀를 둔 취업간호사들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보통보다 약간 높았는데 이는 다른 직종의 취업모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취업모 간호사는 직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 자녀양육 역할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자녀 양육을 스트레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한 만족으로 스트레스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직장 내 탁아소 설치나 어린이집 운영 등과 같은 취업모간호사를 위한 양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같이 양육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중재하였을 경우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추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REFERENCES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ass.
- Baek, Y. S. (2007). *Study on factors that effect mother's stress and guilt in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5*, 85-96.
- Bong, H. J. (2008). *Parenting stress and it's related variables of employed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Cm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outer, A. C., & McHale, S. M. (1993). Temporal rhythms in family life: Seasonal vari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work and family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8-205.
- Go, S. H. (1994). Study on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Korea Youth Study, 18*(2), 21-37.
- Howe, C. A. (1994). *Single, African-American, low income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and stress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peer status*. Research Project, Wayne State University, Detroit, USA.
- Huh, S. G. (2006).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Hwang, I. H. (1998). *Of working wives on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o, H. J. (2001).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needs of day-care service for working mothers employed at hospital: Focused on working mothers employed at the 's' hospital located in Eunpyong-gu,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Jo, Y. J. (1998). *Employed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M. (2004).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J., & Park, J. W. (1991).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s of nurses in the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21*(3), 46-59.
- Kim, K. H., & Kang, H. G. (1997). 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L. J. (2000). *Workplace child care facilities, parenting stress on working mothers to use the ecological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University, Seoul.



- Kim, M. Y. (1995).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solutions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4), 54-69.
- Kim, S. S. (2006). *Study on the government female employee's stress from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won, Y. S. (2006). *Employment nurse child care and family-related variables and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Mann, M. B., & Thornbu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Solis, M. L. & Abidin, R. R. (1991). The Spanish version Parenting Stress Index: A psychometric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372-378.
- Statistics Korea (2009).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port, from <http://www.kostat.go.kr>
- Yoo, I. Y., Lee, K. J., & Chae, S. M. (1998). Study was to compare the parenting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related to two child-care arrangem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arent Child Health*, 2(2), 159-169.
- Yun, M. H. (2006). *Study on the bringup stress of preschool children of working mother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